

\*워크숍의 제목은 오은의 시를 패러디하였습니다.

# 평면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 입체처럼

시X사물X음악X몸이 있는 예술 융합 교육 워크숍

10.21.(토) 오후 2시 (약 90분)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아트라이브러리

<평면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 입체처럼>은

하나,

문학의 세계를 음악과 움직임과 언어가 통합된  
예술 감각으로 확장하여 서로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하고자 합니다.

둘,

책의 세계를 경험하는 공간에서  
목소리와 신체를 통해 시를 노래하고  
움직임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셋,

인간의 삶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인간의 합창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생명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게 하고자 합니다.

진행자 : 함돈균 (APAP7 참여작가) X 김영전 (예술교육가, 오르프술베르크연구회 대표)

피어라 돼지

김혜순 시집



## <프로그램 구성>

### ▣ 위밍업

- 목소리 및 신체악기 위밍업 하기,  
호흡하고 움직이기, 시 낭송

### ▣ 진리의 만달라

- 시와 말리듬 + 노래 + 악기 앙상블

## <프로그램 구성>

### ▣ 사물과 순간의 테이블

- 시와 사물을 활용한 말리듬+ 신체악기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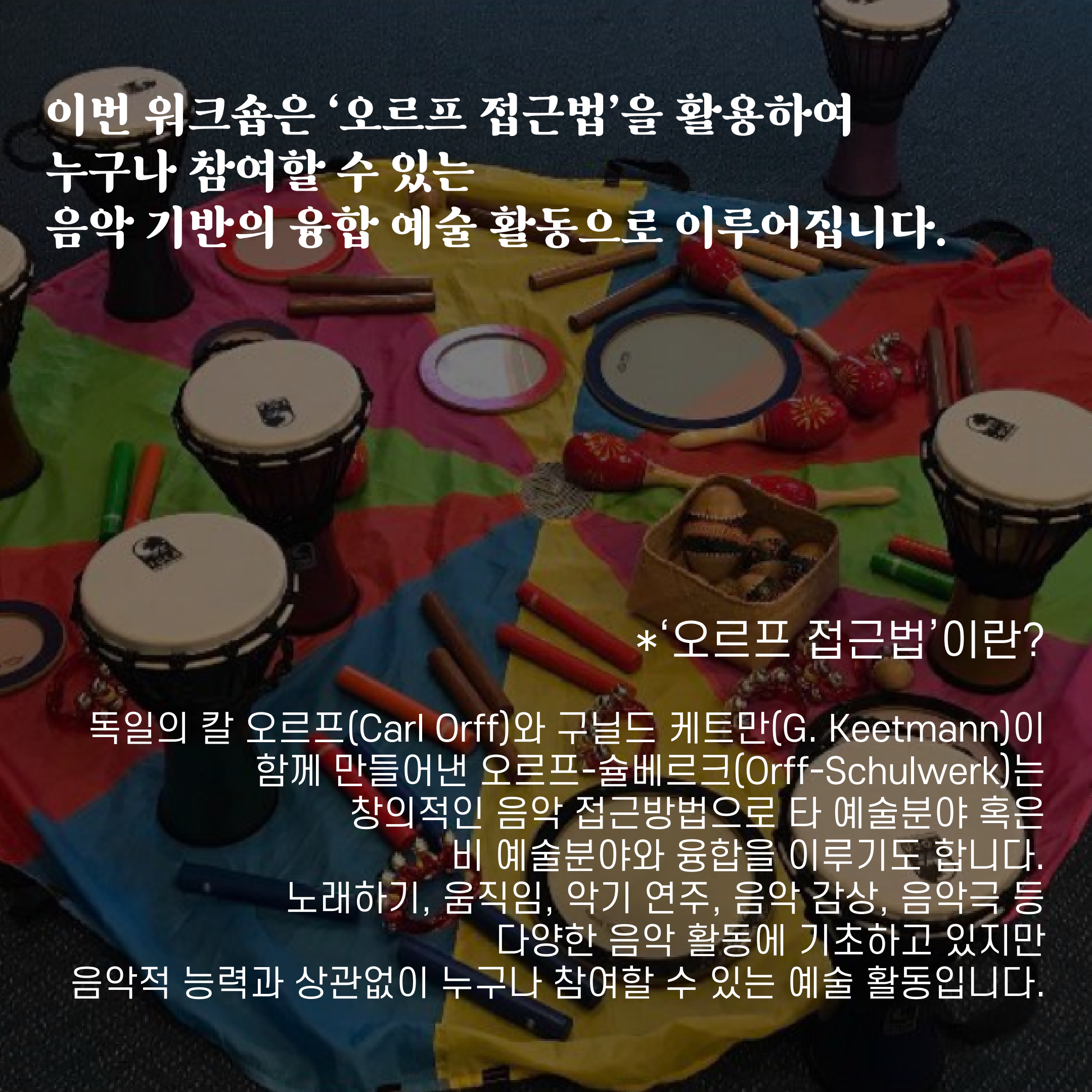
- 테이블에 놓여있는 사물들에 관한 문장을  
낭송한 후에, 사물 그림 카드를 보고  
말리듬 앙상블 만들기

## <프로그램 구성>

### ▣ 시의 탐 & 피어라 돼지, 날아라 돼지

- 시의 탐 네 면의 문장을 활용한 말리듬 앙상블  
+ 무선을 악기 앙상블

- 피어라 돼지, 날아라 돼지 선율을 나누어  
노래하며 걷기



이번 워크숍은 ‘오르프 접근법’을 활용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악 기반의 융합 예술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 ‘오르프 접근법’이란?

독일의 칼 오르프(Carl Orff)와 구널드 케트만(G. Keetmann)이  
함께 만들어낸 오르프-슐베르크(Orff-Schulwerk)는  
창의적인 음악 접근방법으로 타 예술분야 혹은  
비 예술분야와 융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노래하기, 움직임, 악기 연주, 음악 감상, 음악극 등  
다양한 음악 활동에 기초하고 있지만  
음악적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입니다.

문학과 책의 세계에서 확장되는 감각을 느끼고,  
우리 삶에 흠어진 공생의 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워크숍  
<평면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 입체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APAP' 또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검색하고,  
예매창을 눌러 신청해 보세요.